

# 주택의 허와실

## 주거환경의 허와실 / 주택설계도의 허와실

元 正 洙

(인하대건축과 교수)

### □ 주거환경의 허와실

일과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공중전화 박스 처럼 생긴 샤워실에서 땀을 씻은 뒤 침대 겸 소파에 몸을 내던진다. 옆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입체음향의 감미로운 음악과 더불어 맞은편 벽에 붙박힌 컬러TV의 아름다운 화면이 눈을 앗아간다. 그런 자세로 잠시 쉬고 있노라면 인스턴트 저녁식사가 붙박이 간이 부엌셋트의 오븐 속에서 뜨겁게 데워졌다는 차임벨 소리가 잇었던 시장기를 일깨워준다. 벌떡 일어나 벽속에 감춰 세워진 식탁을 꺼져 놓고 저녁 식사를 제 나름대로 끝마치고 나면 짜증나는 설겜기는 기계설비가 자동적으로 깨끗이 위생적으로 끝내준다.

다음에 남은 일이란 잠잘 일밖에 아무것도 없다.

허전함을 메꿔주는 것은 오직 떠오르는 공상뿐 이던가.

어린 시절 시골 외갓집 뒷마루에서 덩굴던 일이 생각키워진다. 반딧불이 띄엄띄엄한 밤하늘의 별을 세던 그 맑은 공기의 자연세계를 그려 볼때 문득 지금의 자신이 덧없이 서글퍼짐을 느낀다.

현대에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주거공간으로서 방의 크기라야 고작 두평 반 남짓한 비좁은 곳에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 샤워장, 벽장 등의 모든 편리한 기능이 벽속에 붙박이로 박혀 자동電氣設備로 꾸며져 있어 마치 우주비행선 캡슐 같은 홀아비 독신자용 살림방의 풍경이다. 미래 공상소설의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웃나라 동경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천재 건축가의 야심작 작품이다. 이 착상은 팽창하는 도시인구와 끝없이 넓게 펼쳐진 도시가 빚어낸 교통지옥을 감안해서 도심지의 비좁은 땅위에 세운 출·퇴근이 편리한 잇점을 지닌 옥수수 처럼 생긴 공장제품의 조립건축물이다.

금싸라기 보다 비싼 땅이라 넓고 시원스럽지는 못하지만 우주선 캡슐속에서 처럼 버튼만 누르면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 음식도 나오고 술도 쏟아져 나와 물질적 기능과 생활의 편리성은 모두 해결하여 주는 기발한 착상의 공간이 발명 제작되어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얼마동안 살아본 사람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이 좁은 감방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빠빠용의 처지임을 발견한 것이다.

그 뒤로 도심지의 이런 아파아트는 구경거리로만 그쳐 남게 되고 말았다.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흑평을 해서 꽤

지우리 같다고 부끄러워 하던 풍뎡이 처럼 생긴 초가집은 사라지고 그 대신 도시형으로 개발된 주택을 흉내낸 얇은 꼴의 집들이 초원에 불길 번지듯 고속도로변에서부터 시골과 두메산골에 까지 퍼져 마치 이웃나라의 사무라이 성곽처럼 우뚝우뚝 솟아 있다.

물론 한국의 땅이지만 해외로 불리울 만큼 풍토가 특이한 제주도의 주택은 옛부터 독특한 형태와 문화를 안고있다. 스펀지 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게 하는 화성암의 잡석으로 울타리를 둘러 쌓고 누비이불 처럼 새끼줄 그물을 엮어 덮어씌운 초가지붕의 제주도 집은 20세기 현대건축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미스 반 데르 로에」가 주장한 코트 하우스 보다 훨씬 원조(元祖)이며 오히려 그 보다 더 인간적인 생동력이 깃들어 마치 자연생태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요즘의 제주도 풍경을 보면 대도시 변두리에 널린 부동산 업자들의 급조(急造)한 주택의 양상을 그 대로 보는듯 하다. 번쩍거리는 다양한 타일벽분수없이 솟아 오른 지붕이며 비 바람에 견디기 불안해보이는 창문들은 너무도 축은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콩보리밥과 된장찌개의 기운으로 논두렁을 누비며 잠자리, 메뚜기 등을 잡으면서 맑은 공기를 듬뿍 호흡하며 잔병없이 뼈가 굵어온 오늘의 어른들이 이제 귀여운 자녀의 출세를 원한다는 교육열과 더불어 주부의 고생과 수고를 덜어주는 편리한 설비와 구조 및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단주택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주위가 시끄럽고 공기도 탁한 도시의 밀집지대로 몰려들어 점점 굴레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말이면 여기에서 벗어나 자연의 맑은 세계에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핑계로 낚시니, 등산이니, 골프니, 가족과의 소풍이니 하여 각양각색의 형태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며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주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또, 가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의 사람들은 별난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마치 꿈속에서 그리듯 그 나라들의 집과 같은 이국풍의 집을 동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신식으로 좀 달르게 설계된 주택이면 복덕방들은 거침없이 “불란서식”이라고 불렀고 그래야만 손님의 귀가 솔깃해서

흥정이 잘되고 거래가 이루어 졌다. 요즘 다행스럽게도 중동경기가 좋아 건축기사들을 모아서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은근히 그 경기가 저물어갈 때를 상상해 보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궁리한 묘안 중의 하나가 진짜 불란서땅에 한국제 불란서식 주택을 수출하면 한동안은 더 건축경기를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상천외의 공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외래 중시 풍조에 물들었던 우리 한국인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국산 T.V나 냉장고를 외면하고 웃돈까지 없어 주면서 외제품을 갖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산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형성 되자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에 알맞는 독창적 제품들이 무수히 개발 생산되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준다.

그 중에서 1970년 대에 특히 급성장을 이룬 새로운 업종이 바로 주택산업이다. 한때는 치맛바람 부업중의 하나로 천시되었던 소위 집장사란 영세기업이 일약 대량 생산 기술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대규모 산업으로 등장하여 이 기세는 만성적인 미해결 정책과제인 국민복지를 위한 주택난 해소 문제를 일거에 휘몰아 풀어나갈 듯한 위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가족 제도의 재래식 한국주택에서의 핵가족제도와 그 주거양식이 서구화 및 근대화된 변화는 극히 최근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중양공급식 난방 시스템은 재래식 부엌과 온돌 아궁이의 불편으로 부터 주부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원래 공동주택 생산의 목표와 의의가 주민의 알맞는 주거생활에 대한 편의와 안락을 도모케 해주며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유가 인상은 여러 측면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케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 논외로 하고 최근 들어 일부 불량 집단주거 환경과 부실공사로 인한 불량주택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을 주어 전체 주택산업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경우를 가끔 신문 지상에서 또는 실제로 보게됨은 크게 우려되며 섭섭한 일이다.

한반도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세워지는 주택은 생활하기에 편리롭고 안락한 주택만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옛날 호롱불 아래 아랫목에 웅기 쫘기 모여 살던, 조금은 가난하였던 그 시절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고 행복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설계도의 허와 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이런 것이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바꾸어 말하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좀더 비약해서 집을 짓는

길잡이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얻기 위해 설계도를 그리던가, 아니면 도면효과를 보기 좋게 살리는 묘미를 위한다면가...

이지음에 설계도가 지니는 가치와 설득력과 공신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현대 주택건축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설계도서표기의 수단에 관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꾀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모든 건축설계 제작 중 특히 주택설계과정에서 제도 판에 매달려 도면제작에 열중하는 묘미란 실로 오묘하고 무한한 황홀한 꿈속을 더듬는 듯한 환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고 비록 종이위에 단순한 연필로 줄을 긋는데 불과하지만 그 경지는 바둑국수의 초입기에 물리는 수풀이와 상상 추리의 경지는 가히 우주에 비할만하다.

백치 미인 얼굴화장술처럼 신듯한 도면 효과에만 심취하는데 그치는 도면술도 상당한 발전을 보았지만, 과연 설계도란 주택을 위해 어떤 필연성을 지녀야 하는가?

설계도를 둘러싼 건축행위의 전개와 진행은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편의한 매개와 기초가 되며 또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한 언어에 버금가는 건축가의 의지 표현의 최상의 수단임을 말할나위도 없다.

언어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는 데도 사람에 따라 소양과 개념인식의 차이에 따라 엄청난 오해를 불러 일으킬때도 많다. 하물며 문자 표기와도 같은 설계도서의 의사표기전달기능이 과연 얼마큼 건축가의 의지와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

설계표기의 내용에 따라 주택건축의 질적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설계도에 의존 되면서 주택건축의 질적평가와 결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첫째, 시공과정에 있어서 불실공사 구조에서 일어난 분쟁이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의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고 반목하는데 시비꺼리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둘째로, 주택계획 설계자가 완성되어질 주택조형물 의 실체와 공간을 상상하던 꿈과는 달리, 이를 오로지 도면에서 상상력과 기억을 그려 읊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착각을 밝혀보지 못하는 능력에서 완성단계의 작품의 실체가 불러일으키는 분쟁과 시비 또한 적지 않은 예이다.

가히 설계도판 종이위에 펼쳐지는 건축가의 능력은 바둑기사의 “프로”와 “아마”의 수준이 등급으로 나눌만큼의 그 능력의 차와 경지의 차이도 다양하다.

주택건축의 질적발전과 향상을 꾀하려는데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하겠지만 바로 표기수단의 과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점에서 어떻게 자성하고 개선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우선 건축계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건축가는 주택설계도에 의해서 준공된 작품을 기대이상

의 꿈을 갖는 예가 많다. 시공기능의 저질과 무능한 현실에 실망과 탄식을 자주한다.

한편,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법과 기술특성에 관한 전문적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림으로만 메꾼 설계도를 경멸하며 무시하여 노련한 현장시공기술자의 재량으로 적당히 능숙하게 마무리하는 입장의 항변도 거세다.

이렇게 주택건축의 질적향상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을 서로 상대방의 역할에 성의와 전문적 노력을 기대하는 것만큼 이 가운데 건축주가 기대하는 엄청난 꿈과 환상은 건축계가 풀어줄 수 없는 새롭고 특이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증세마저 곁들인 경우가 허다하다.

평생에 새집짓는 감격과 흥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건축가와 건축주는 계획단계부터 동상이몽속에서 마음껏 헤메인다.

인간과 자연의 환경을 그려 보여 주면 루이왕의 별궁이나 오나시스의 별장으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축가와 건축주의 대화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는 건축적분야에서 해결정착되어질 문제라기 보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분수와 삶의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당면한 기본적 문제이다.

설계를 의뢰하고 존경하며 기대하던 건축가의 작품이 완성되어 입주하면서 부터 건축주의 욕망과 기대는 일시에 무너진듯이 별장도 아니요 주택작품집속에 그림도 아닌 현실에 마치 배신을 당한 심정은 작가에 대한 증오와 반감으로 둔갑되고 만다.

어디서 어디까지 설계도의 의도와 내용을 믿어 달라고 해야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 조각처럼 빚어냈던 작품의 역사도 허다했다.

완벽한 설계도 어디 있는가? 시공하다보면 변경하게 마련이지!

자재생산의 품질과 규격의 안정과 수요 공급이 일상화되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기술정보를 인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경우라면 건축구성 기본의 도면표기와 내용에 무슨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겠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건축가에게 너무도 가혹한 기대의 굴레로 묶이면서 억울한 누명만 더해가는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개할 것인가?

주택설계도의 용도가 단지 허가도면이란 속어가 나뉘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주택은 현장기능자 능력에 의존하던 현실도 해외 건설참여로 인한 기능자숙련도 저하가 상당한 사회 문제이다. 이와 아울러 주택량산의 주택산업의 경제구조의 확대가 더욱 량산조립, 공정의 지침으로 설계도의 객관성과 정밀도 신뢰도는 더욱 요구된다.

미숙련 기능공은 도덕적 소양도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주택공사에 미치는 옷지못할 분쟁을 일으킨다.

예를들면 하수도관에 세멘트폐수를 부어 막히게 하든가, 완공된 저수조속에 오물 쓰레기를 부어넣는다든지 캐스베판의 접속마무리를 소홀히 다룬다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주택설계의 범주에 몰아넣어 건축주의 원성은 건축가에 대한 불신과 물이해가 상당히 누적되는 특이한 건축사회 현황중의 하나라고 본다.

과연 건축가의 생각과 구상과 의지가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설계표기의 수단으로 표현되어 현장 공정에서 모든 행위가 의도대로 추적되어 완성을 보게되는가? 종이에 그려진 설계표기가 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최선인가? 3천년전 돌에 새겨진 집그림, 진흙판에 그려진 도면 오랜 역사에서 설계도 변천은 전자 두뇌의 힘이 대신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 인공 두뇌 관리하는 저변이 또한 고도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자료정보의 정확성등 이는 중동에서 겪어온 국제건설기술에서 상당한 진통을 치러온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황이다.

건축가의 꿈을 갖은 젊은 수련자는 대부분 건축 설계연구소에서 도면작도의 묘미를 체질에 베어 스며 들도록 고통스러운 밤샘을 하며 수련단련을 쌓는다.

너무 종이위에서만 환상과 꿈을 파내는 행위에 치중되어 버리는 경향이 앞서 말한 설계 표기의 진의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현황의 요인중에 하나가 됨을 확신하게 된다.

심지어 실습 및 현장전학과 참여체험 교육없는 강의일변도에 설계경시풍조의 건축계의 현실을 희망적으로 보아 지지 않는다.

설계교육의 체험을 통해 가장난해한 교육학이 있다면, 건축가 양성의 전인교육이라고 실감한다.

때때로 설계시간에 아무 목적 의식없이 제도 용지에 보기 좋게 즐기고 그림 효과로 다듬질하는 행위로 그치는데, 이를 한층 더 건축공간, 조형의 실체를 실감할 만큼 상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방법을 나름대로 궁리도 해본다.

역시, 체험을 제외한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이 건축 창작 분야이다.

즐거워 시도하는 설계지도 방법중에 항상 기거생활 하는 자택을 예고없이 평소의 기억만을 더듬어 설계도록 유도하여 표기 작성하는 지도도 하여 보았고, 가급적 적성이 보이고 기대를 들만한 몇몇 학생에게 실습체험을 권장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늘의 주택건축의 현황은 여러모로 변천이 다양하였으며 주택생산 기술의 향상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주택건축에 관해서 건축계가 능동적으로 미래를 대처해야 할 역할의 재확인인 량산주택의 생산성과 주거환경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를 해결하 (P.43에서 계속)

(1976. 4.15. 령제168조의 2) 등 규정이 신설되고 몇번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그 내용에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여하튼, 이같은 규정으로 인동간의 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되게 되었으며, 특히 공동 주택의 경우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경우 일률적인 인동 간격 확보보다는, 동지때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규정이 보다 보건 위생상 좋고 아늑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시킬수 있다.

현행건축법 집단 규정에서 가장 문제 되는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 방법이다. 주거 지역 내에서 2층이하의 단독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에 따라 북쪽은 집대지 경계선까지 그 높이의 1/4만큼 빼어야 하고(령제167조 ①)가 기타 방향에서는 외벽 각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이상 처마끝을 20cm이상 빼어야 한다(령제168조의 2②). 또한, 준주거 지역 내에서는 북쪽 외벽을 정북 방향으로 1m 이상, 기타 방향은 주거 지역에서의와 같이 빼어야 한다(령168조의2②).

위와 같은 규정들이 인동 간격을 어느 정도 빼어 놓음으로서 통풍 채광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거 지역내 최소 대지 면적을 90cm<sup>2</sup>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실정에서 모든 주택을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빼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는 정책이, 과연 토지 이용상 옳으며, 좋은 주택지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문제다. 집 주위에 공지를 확보하는, 소위 개방식 주택 형식은 한 대지의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구라파 도시에서 발달한 형식이

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재래 전통 주택처럼, 가운데 마당을 두는 위요식 주택이 발달해왔다. 서구에서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땅값이 오름에 따라, 코트 하우스의 장점을 재인식하게 된것이 우연은 아니다.

개개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로 특히 대지 규모가 적은 경우, 환경 좋은 주택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구 상세 계획 또는 환경 성과식 규제-예를 들어 일정 거리이내에서는 다른집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을 내서는 안된다던가, 어떤 방은 동지때 하루 몇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든가, 인접 기존 주택의 최소 일조 조건을 방해하게 건축해서는 안된다 하는등 -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같은 방법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 실시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코트하우스의 건설이 가능한 길은 지금이라도 트게할 수 있다. 가령, 집단으로 몇채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또는 기존시가지에서도 이웃간에 동의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아래, 대지 경계선에 맞춰 벽이나 처마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쓸데 없는 담을 없애고, 재래 한옥처럼 쓸모있는 마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행 규정으로 생겨나는 이웃집 사이의 공간 보다 훨씬 유효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통풍, 채광, 프라이버시등에도 좋은 주택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 1974년 「건축사」No. 63, No. 68. 1976년 건축한국Vol 3. (※)

**(P. 32에서 넘어옴, 주택의 허와 실)**

는 방법이 종래의 수공업적 기능 행위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을 계획하던 개념으로 고집할 수가 있겠는가?

한편 단독주택의 건축주의 구체적 욕구에 의해 행하여지는 주택창작 과정에 있어서 서로 설계도를 징검 다리로 하며 표기수단에 의존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주택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밝혔다.

설계도면제작에만 그치는 설계행위인지 주택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제작 행위인지 어느것을 위하는가를 규정하기조차 스스로 자성하기도 쉽지 않다.

나만큼 잘그리는 설계보다 뜻대로 매듭진 주택실체로 확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건축가의 생명일 것이다.

(※)